『숙의형 리빙랩 운영 정책발굴(안) 워크시트-러닝 웨이브』

서귀포시 자구리 공원 오션뷰 러닝 명소화 및 러닝 인프라 개선 지원 정책발굴(안) 워크 시트

항목	정책 발굴 방향 및 내용
단위별 분야	1. 해당 분야: - 관광 정책 / 스포츠·체육 정책 / 도시공원 및 생활SOC 정책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2. 도출 안건: - 자구리 공원을 「오션뷰 러닝 성지」로 명소화 지정하고, 러닝 관광 특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자구리 공원 연계 오션뷰 러닝 명소화 및 러닝 인프라 개선 조례(안)」 제정 및 예산 지원.
제안배경 및 필요성	1. 러닝 기반 스포츠 관광의 확대와 트렌드 변화 - MZ세대를 중심으로, 여행지에서 단순 관람·휴식이 아닌 **'내 몸을 움직이며 경험하는 액티비티형 관광'**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음. - 마라톤·하프마라톤, 러닝 크루 투어, 런앤워십(러닝+관광지 탐방) 등 경험 중심 러닝 관광 상품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 자구리 공원의 입지와 환경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활용 부족 - 자구리 공원은 해안가와 인접하여 탁 트인 오션뷰, 적절한 고저차, 공원·산책로·도로가 연계된 복합 코스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현재는 일부 산책·사진 스팟으로만 인지되고 있으며, 공식 러닝 코스 지정, 안내 체계, 편의시설, 안전시설, 브랜드 스토리 등이 부재하여,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3. 안전·편의 시설 미비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잠재 위험 - 야간 조명 부족 구간, 노면 파손, 비·바람 등 기상 조건 변화에 취약한 구간이 존재함. - 물품 보관, 간이 세면·샤워, 옷 갈아입기 공간이 없어 장거리 러닝 후 충분한 회복·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임. - 초보 러너·관광객 입장에서는 코스 정보(거리, 난이도, 경사도, 위험구간 등)를 알 수 없어 러닝 관광지로서의 접근성이 떨어짐. 4.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 부재에 따른 홍보·마케팅 한계 - 자구리 공원은 자연경관이 뛰어나지만,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브랜드 메시지·슬로건·시각 아이덴티티가 부족함. - 이에 따라, SNS·관광 플랫폼에서 자구리 공원을 러닝 스팟으로 검색하거나, 러닝 관광 코스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제한적임. 5. 지속 가능한 운영·관리 체계 부재 - 공원·도로·관광·체육·상권이 연결된 복합 공간임에도, 통합적 관점에서 관리·운영하는 제도·조직이 부족함.
현황과 문제점	1. 걷기·산책 중심 인프라에 머문 공원 구조 - 산책로·벤치·전망대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러닝을 고려한 노면 설계·코스 안내·페이스(속도) 가이드 등은 전무함.

	2. 러닝 특화 편의시설 부족 - 러닝 후 땀을 씻을 수 있는 샤워실, 옷·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라커, 간단한 스트레칭 공간 등이 부족해, 관광객 입장에서 장거리 러닝을 시도하기 어려움. 3. 야간 안전 및 접근성 취약 - 일부 구간은 조명이 부족하거나, 빛 간섭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존재. - 야간 러닝을 즐기는 젊은 층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방문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4. 러닝 코스에 대한 정보 제공 부재 - 코스별 거리, 시간, 난이도, 경유 포인트, 위험 구간 등 기본 정보 안내판과 디지털 맵·QR 시스템이 미비함. - 관광객·초보 러너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5. 민·관·지역 커뮤니티 협력 구조 미비 - 러닝 동호회, 인근 상인회, 청년 창업 팀 등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나, 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거버넌스가 형성되지 못해 공동 기획·운영의 장점이 충분히 살지 못함.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의 기본 방향 - 자구리 공원을 「오션뷰 러닝 성지」로 명소화 지정하고, 러닝 코스 정비, 러너 전용 편의시설 설치, 야간 안전 인프라 확충,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시스템 구축, 러닝 프로그램·축제 운영을 조례·계획·예산으로 체계화하여 지속 가능한 러닝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조례 제정(가칭) 「서귀포시 자구리 공원 오션뷰 러닝 명소화 및 러닝 인프라 개선 지원 조례(안)」 주요 골자 1) 목적 조항 자구리 공원을 오션뷰 러닝 명소로 조성·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및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정의 조항 - '오션뷰 러닝 코스': 자구리 공원 및 인근 해안·도로를 연계하여 조성되는 지정 러닝 코스. - '러닝 인프라': 러닝 코스, 안전시설(조명·CCTV·비상벨 등), 편의시설(샤워실, 라커, 탈의실, 수분 보급 시설 등), 안내 및 정보 제공 시스템을 포괄함. - '명소화 지정': 서귀포시가 자구리 공원을 공식적인 오션뷰 러닝 명소로 선포·홍보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3) 시장의 책무 - 시장은 자구리 공원의 오션뷰 러닝 명소화를 위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 편성,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함. - 러닝 인프라의 정기적 점검·개선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함. 4) 명소 지정 및 관리 - 자구리 공원을 '서귀포 오션뷰 러닝 성지'로 지정하고, 지정 사실을 시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에 공고. - 지정된 명소에 대해 러닝 코스 구간, 거리, 표준 동선, 주요 포인트를 포함한 기

	본계획을 수립. - 해마다 코스 상태·이용률·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함. 5) 러닝 인프라 설치 및 지원 -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러너 전용 편의시설(샤워실, 물품 보관함, 탈의실 등)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 - 노면 정비, 야간 조명 보강, 비상벨·CCTV 설치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 6) 민간 위탁 및 청년·지역 협력 - 러너 전용 편의시설의 운영은 지역 협동조합, 청년 창업 조직,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위탁운영 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영 방침을 마련함. 7)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시는 오션뷰 러닝 코스를 활용한 러닝 페스티벌, 런투어, 체험 프로그램을 민간과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자구리 공원을 전국 러너에게 알리는 홍보 사업을 시행함. 8)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 시는 매년 코스 이용자 수, 러닝 관련 행사 개최 건수, 인근 상권 매출 변화(조사 가능 범위 내), 이용자 만족도 등을 지표로 삼아 사업 성과를 평가함. - 성과 결과는 다음 연도 계획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함. 3. 세부 내용 1) 오션뷰 러닝 코스 정비 및 브랜드 조성 - 코스 구간 설정(예: 3km, 5km, 10km 코스 등) - 포토 스팟, 전망 포인트, 스트레칭 존, 휴식 공간 배치 - 코스에 통일된 디자인의 이정표, 거리·난이도 표지판, 브랜드 로고 설치 2) 러너 전용 편의시설 설치·운영 모델 - 샤워실, 간이 탈의실, 물품 보관함(락커), 수분 보급대 설치 - 이용요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되, 운영 주체(청년 창업팀/지역 협의체) 수익이 지역에 환류될 수 있도록 설계 - 친환경 자재 및 물 절약 설비 적용을 권장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3) 야간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 어두운 구간 조명 보강, 바람·파도 상황을 고려한 안전 안내 문구 설치 - 비상 호출 시스템 및 CCTV를 주요 지점에 설치하여 야간 러닝의 안전성 강화 4)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시스템 구축 - 코스별 거리·난이도·예상 소요시간, 경유지 설명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페이지로 연결, GPS 연동 지도·러닝 기록 연동 서비스(향후 앱 연계 가능) 제공 - 다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지원으로 해외 관광객 접근성 제고 5) 러닝 프로그램·페스티벌 및 굿즈 개발 기반 마련 - 연 1회 이상 오션뷰 러닝 페스티벌(가칭) 개최 - 지역 상권과 연계한 쿠폰, 스탬프 투어 운영 - '오션뷰 러닝 성지' 로고를 활용한 텀블러, 러닝 티셔츠, 타월 등 굿즈 개발 → 수

	익 일부를 코스 유지관리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속 가능한 구조 형성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	1. 총괄 부서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또는 공원·체육 관련 부서)를 총괄 부서로 지정 - 연간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부서 간 협업, 성과평가 총괄 2. 협력 기관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체육진흥과 - 제주관광공사 및 관광 관련 유관기관 - 자구리 공원 인근 상인회, 마을회, 청년 단체, 러닝 동호회 - 제주관광대학교 호텔관광과 RISE사업단(리빙랩 자문 및 학술 지원) 3. 전문 자문단 구성(예시) - 러닝 코치·트레이너, 도시계획·조경 전문가, 관광·마케팅 전문가, 안전·방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코스 설계, 안전 기준, 브랜드 전략,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자문 제공
추진 일정	1단계: 기반 구축(1년 차) - 조례 제정 및 시행계획 수립 - 자구리 공원 오션뷰 러닝 코스 기본 설계 - 편의시설 설치 위치 선정, 예산 편성 2단계: 코스 조성 및 시범 운영(2년 차) - 코스 정비 및 인프라 설치 완료 - 시범 프로그램(러닝 데이, 파일럿 페스티벌 등) 운영 - 이용자·주민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반영 3단계: 브랜드 확립 및 확산(3년 차 이후) - 정례 축제·프로그램 운영 - 전국 러닝 커뮤니티 및 여행사와 협업한 상품화 - 성공모델을 인근 타 공원·해안 코스로 확산 검토
기대효과 및 확산 전략	1. 관광객 유치 및 체류 시간 증대 - 러닝 관광 특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러닝 목적 방문객 증가 - 러닝 후 카페·식당·숙박 시설 이용으로 체류 시간 및 1인당 지출액 증가 기대 2.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권 회복 - 인근 상권과 연계한 러닝 패키지(모닝런+브런치, 선셋런+디너 등)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 러닝 굿즈, 로컬 브랜드 협업 등 부가 수익 창출 가능 3. 시민 건강 증진 및 건강도시 이미지 강화 - 시민·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러닝 코스를 통해 일상 속 운동 참여 확대 - 서귀포시가 웰니스·스포츠 관광 도시로서 이미지를 강화하는 계기 마련 4. 도시 브랜드 및 정책 선도 효과 - 제주 최초의 '오션뷰 러닝 성지' 조성 사례로서, 전국 지자체에 확산 가능한 모델 제시 - 자연환경과 스포츠, 관광, 지역경제를 연계한 융합형 정책 사례로서 의미를 가짐.

	5.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 마련 - 러닝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을 러닝 프로그램 굿즈 수익 등과 연계한 기금 구조로 일부 충당 가능 -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코스 조성 및 이용자 교육을 통해 환경보전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